

영화



오동진의 씨네카페

‘한반도’ 촬영 마친 강우석 감독

“日과 해상마찰... 현실재연 당혹”

강우석 감독이 또 한반도 대형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독도 분쟁 등 한·일 간에 해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군사 분쟁’을 담은 초대형 야심작 ‘한반도’가 촬영을 마친 것. 7월 초 개봉을 목표로 현재 한창 후반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강우석 감독과 얘기를 나눴다.

“한반도” 기획은 2년 전에 이루어졌다. 촬영은 작년 10월에 들어갔고, 조금씩 군국주의적 모습을 갖춰가는 지금의 일본과 계속 논쟁이 돼 왔던 독도문제, 교과서 사건 등을 보면서 앞으로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2010년대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촬영 기간 중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조

도로 가는 방향에서 찍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해보면 스페큘러가 살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 그래픽은 화면을 대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다 실제로 찍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한국영화 블록버스터 가운데 최고의 대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항상 큰 영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영화의 총 제작비는? ...시작할 때 순제작비로 100억을 잡았다. 거기에 오늘까지 딱 96억2천만원을 썼다. (웃음) 홍보, 마케팅까지 다 합치면 120억~13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다.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MI3’ 돌풍 한국 극장가 ‘날벼락’

개봉 3일째 전국 165만 관객 모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에 한국 영화들이 ‘박살’이 났다. 지난 3~5일, 황금의 연휴 동안 말 그대로 황금을 손에 쥔 영화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3’였다.

이 영화는 서울에서만 41만여 관객을, 전국적으로는 무려 165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이 정도면 ‘돌풍’ 혹은 ‘대풍’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 싶다. 한국영화로서는, 특히 ‘사생결단’과 같은 영화로서는 ‘벼락’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해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미션 임파서블 3’을 위해 배급사인 UIP코리아는 전국적으로 무려 460개의 스크린을 열었다. 전국 308개 스크린이었던 ‘사생결단’은 배급력에 있어서도 결국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미션 임파서블 3’, 흔히들 ‘MI3’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당분간 순한맛을 단 톰 크루즈가 주인공을 맡아 줄 수조름게 보낼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더 이상의 경쟁작이 없는 현실에서 ‘MI3’는 아마도 400만 고지는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

다. 굳이 400만까지만 끊는 것은, 18일에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가 개봉되기 때문이다.

‘다빈치 코드’의 위력은 현재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공개된 해외에서는 이미 폭풍이 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극장가에서도 일정 정도의 회오리가 예상되며, 그렇다면 5월 한달은 완전히 할리우드관이 된다는 얘기가. 현재 한국영화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7월초 개봉...한·일관계 등 민감한 사안 다뤄

제작비 130억 투입...할리우드 대작에 도전장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속이 후련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이럴 수 있는냐’는 격한 반응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 단계에선 근미래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여겼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는 ‘픽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국가 정세 때문에 영화가 점점 논픽션화 되어 가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

“어쨌든 요즘의 한일관계와 흡사하다. 언제 기획한 영화인가? ...기획은 2년 전에 이루어졌다. 촬영은 작년 10월에 들어갔고, 조금씩 군국주의적 모습을 갖춰가는 지금의 일본과 계속 논쟁이 돼 왔던 독도문제, 교과서 사건 등을 보면서 앞으로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2010년대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촬영 기간 중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조

영화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물론 한일합방부터 거의 120년을 그린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고종 때 국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가? 해방이 되면서 맥아더가 일본에서 그 국새를 다시 빼앗아 돌려줬는데 한국전쟁 때 또 없어졌다. 문제는 한일 합방을 할 때 이 국새가 안 찍혔다는 거다.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프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을사늑약 전인 100여 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키 포인트다. 지금이야말로 100여 년 전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의 구성도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꾸렸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촬영 규모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해상 신이 특별히 많았을 것 같은데 해상 촬영들은 어떻게 했다. ...실제 바다에 나가서 하지 어떻게 했겠나. 남해는 진해와 부산 사이에서, 동해는 포항에서 독



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등 한국영화사자료원과 손잡고 명작 한국영화의 원본을 복원, 소개하는 ‘한국영화 디렉터스 컷 특별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컬트영화의 대부 ‘이시이 테루오 특별전’도 마련한다.

또 ‘이탈리아 공포영화 특별전’ ‘자크 타티의 모던 코미디 특별전’ ‘라이브 음악으로 부활하는 프리츠 랑 특별전’ ‘은마의 천사 오드리 헵번 특별전’ 등 특별전의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부천영화제 파행 끝 정상 가동

이장호 위원장 체제...7월 개막 앞두고 거듭나기 안간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이장호·사진)가 새롭게 태어났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천영화제는 지난 해 전 김홍준 집행위원장 해촉 사건으로 국내외 영화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외면을 받으며 파행을 겪어 왔다.

“영화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물론 한일합방부터 거의 120년을 그린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또한 부천시장이 당면적으로 조직위원장직을 겸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총회를 통해 선출, 위촉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올해 부천영화제는 약 35개국, 250여 편의 영화

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세 감독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등 한국영화사자료원과 손잡고 명작 한국영화의 원본을 복원, 소개하는 ‘한국영화 디렉터스 컷 특별전’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컬트영화의 대부 ‘이시이 테루오 특별전’도 마련한다.

또 ‘이탈리아 공포영화 특별전’ ‘자크 타티의 모던 코미디 특별전’ ‘라이브 음악으로 부활하는 프리츠 랑 특별전’ ‘은마의 천사 오드리 헵번 특별전’ 등 특별전의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